



팔당역에서 을숙도까지

3박 4일 자전거 국토종주 ①

+ 조성도 EBS 디지털통합사육건설단 차장

구성

1부 :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출발전부터 1~2일차 팔당역에서 상주까지

2부 : 3~4일차 상주에서 을숙도까지, 그리고 후기. 돌아가지 말라던 말씀!

40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문득, 40대를 멋지게 장식할만한 게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대의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5시간 38분간의 마라톤, 20대의 정말 무모했던 42일간의 나홀로 유럽 배낭여행.

자전거사고로 광대뼈가 부러진 지 1년 되던 무렵이었다. 아직도 사고를 떠올리면 오금이 찌릿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나의 유일한 건강관리 수단이다. 한강대교에서 탄천을 지나 양재천을 돌아가는 약 20km의 출퇴근길을 부지런히 페달을 밟은 덕에 4월에 400km, 5월에 600km를 탔다. 장거리라고 해봐야 한강 한 바퀴 돌던 80km 정도이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레 생각이 든 자전거 국토종주!

인천 아라뱃길 기점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633km의 자전거 국토종주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겐 산티아고 순례길로 이름나 있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의지도 다지고, 자문도 구하고, 동행도 찾을 겸 소문을 냈다. 수많은 격려와 함께 실행할 수밖에 없는 배수진을 치는데까지는 성공했고, D-Day가 다가오자 더욱더 긴장되었다.

그래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준비 과정이 만만찮았다. 다행히 정보의 시대답게 자전거 국토종주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관련 사이트나 블로그를 수없이 벤치마킹했다.

• 자전거 관련 사이트는

1. 자전거 행복나눔(<http://www.bike.go.kr/>)
2. 4대강 자전거여행 도우미(<http://www.riverguide.go.kr/cycleTour/index.do>)
3. 서울시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http://bike.seoul.go.kr/>)

• 국토종주 관련 큰 도움이 되었던 블로거는

1. 산구루 님의 국토종주 자전거길 가이드 (<http://sanguru.blog.me/>)
2. 띠띠띠 님의 서울 부산 국토종주 자전거 라이딩 (<http://blog.naver.com/ttitti29?Redirect=Log&logNo=50194317152>)
3. 타굴러 님의 4대강 국토종주 3박 4일 (<http://blog.daum.net/mtb1652/456>)
4. keith 님의 국토종주 (<http://blog.naver.com/el2h?Redirect=Log&logNo=50194220491>)
5. 육블리 님의 자전거 국토종주 (<http://blog.naver.com/original0823?Redirect=Log&logNo=150189437255>)

6. 정조교 님의 자전거 국토종주 (<http://blog.naver.com/asdnp?Redirect=Log&logNo=90195402241>)
7. 조맹 님의 자전거 국토종주 (인천-부산) 3박 4일 또는 4박 5일
(<http://blog.naver.com/crawling?Redirect=Log&logNo=80196679364>)
8. armfulriver 님의 국토종주 3박 4일 (<http://blog.naver.com/rhkr6248/130190851113>)

• 부산쪽에서 올라오는 분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중에 몇 분

1. 스몰아이 님의 자전거 국토종주 3박 4일 (<http://blog.naver.com/keunsik114/187526218>)
2. milya 님의 부산→서울 3박 4일 자전거 여행 (<http://milya.egloos.com/4867237>)



알톤 메이조: 26인치 휠, 기어 21단, 무게 13.5kg

먼저, 어떤 자전거를 탈까 고민을 많이 했다. 출퇴근 때 타려고 자출족닷컴 (<http://jachuljok.com/>)에서 구입한 애마(2013 알톤 메이조)는 몸에 익었지만, 너무 속도가 안 난다. 요넘은 참고로 171,000원(자전거 159,000원, 조립비 15,000원, 할인 2,000원)짜리다. 장비를 갖춘 뒤 일을 벌이는 체질이 아니라 일단 질러보고 마음에 들면 장비에 투자하는 편이라, 질책을 많이 받았다. 집사람이 작년에 새로 맞춘 엘파마 MTB XC(26")는 속도감은 있지만, 13.5인치의 프레임 사이즈가 불안하다. 안장이 부러질까 걱정되었다. 두어 번 타보다가 역시나 몸에 익은 메이조를 선택했다.

자! 이제 일정과 준비물..... 욕심은 비박을 하고 싶었지만, 짐이 무거워지면서 체력을 많이 소모할 것 같았다. 물론, 시간도 더 필요했고 주변에 먼저 다녀온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 역시나 텐트는 무리였다. 그래 편하게 자자.

블로거들의 경험에 비춰 3박 4일이면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인천-부산 633km가 제대로 된 국토종주 코스이긴 하나, 지루한 아라뱃길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없이 찍은 한강을 다시 한 번 찍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팔당역 기점으로 을숙도 종점으로 잡았다. 마침 5일 연휴라 하루의 여유가 있기도 했다.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4일 차 오전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실제 준비물



출발 전날 저녁에 전혀 예상 못했던 뒷바퀴 타이어 교체 상황 덕분에 새벽 두시까지 준비하느라 약간 잠을 설쳤고, 비상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덕분에 종주 첫날 먹는 문제가 많이 꼬였다. 매끈해질 정도로 닳은 트레드는 종주 중에 100% 타이어가 터질 거라는 험박(?)에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걱정과 부러움(?)을 안고 출발하는 날, 베란다에서는 실난이 꽃대 하나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자전거 국토종주 1일 차(팔당역 - 충주, 135km)

06:30 기상! 어영부영하다 보니 새벽 시간은 참 잘 흐른다. 집사람이 챙겨준 토마토 주스 한잔과 바나나 두 개를 먹으니 배가 부르다. 용산역으로 출발.

많다,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도 많다. 맨 뒤 칸의 1/3은 자전거다. 셀카질을 시작한다. 오렌지색 마스크와 형광색 바람막이가 확 눈에 잘 띈다. 중앙선을 타고 팔당역으로 향했다. 깜빡 조는 새 벌써 팔당역 도착한단다. 팔당역에서 다들 내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안 내린다. 깜빡하면 못 내릴 뻔했다. 팔당역 명스포츠클드(1577-228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98-6)는 아침 일찍부터 열려 있었고, 자전거 나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미처 준비 못 한 프레임 가방을 하나 사서 종주수첩, 핸드폰, MP3 등을 넣었다. 같이 있는 편의점에서 비상식도 챙겼다. 런키퍼 세팅하고 출발 준비 끝~~~ 신나는 MP3 음악과 함께 달린다. 양수철교에서, 터널에서 여유롭게 셀카를 찍었다. 나중에 시간에 쫓겨 고생할 줄 모르고....



초계국수에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 했으나, 10시에 문을 연대서 실망~~~

옥천냉면에서 냉면 한 그릇 먹으려 했으나, 11시에 문을 연대서 대실망~~~



결국, 양평 장터해장국(031-773-8787, 양평읍 오빈리 434-1)에서 선지해장국에 들깨 듬뿍 넣어서 아점 해결. 길가엔 개망초가 한창이다. 양평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어진다.





양평교 지나서부터 자전거는 우회도로(양덕길)로 가야 되는데 경사도 10% 정도의 후미개고개 300m 정도를 만난다. 벌써부터 끝바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첫 고개인지라 쉼쉼거리며 올랐더니 덤다. 바람막이 점퍼를 벗었다.

그래 바람은 막지 말고 그냥 맞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달리다 보니 금방 이포보가 나온다. 고향 달성보 이후 보라는 놈은 참 보는데 꽤 웅장해 보인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내 목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자전거 국토종주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여주보 편의점에 김밥이 다 떨어졌다나. 아이스크림 하나로 열기만 식히고 다시 출발한다. 이렇게 먹는 일정이 계속 꼬이기만 한다. 강천보 건너 내리막길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다. 내리막길 끝바라니... 내리막길은 무조건 사정없이 내리쬘는 재미로 자전거를 타는 건데, 강천보 어도를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가기로 했다. 시속 20km에서 셀카도 찍어보고, 본의 아니게 질러가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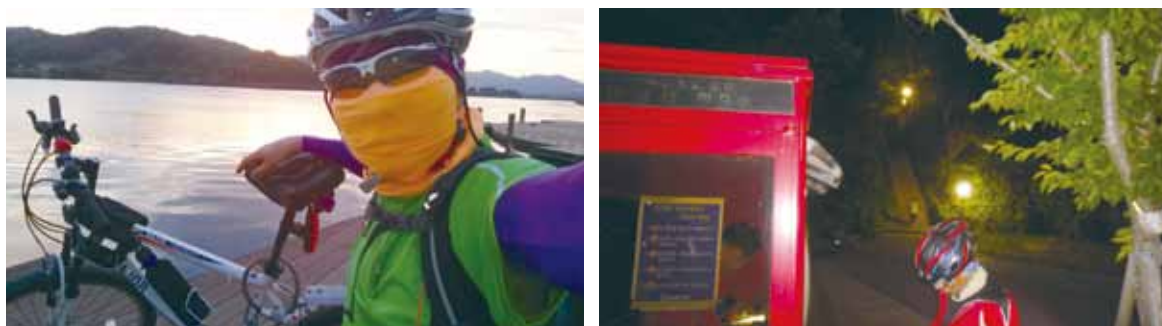
그렇게, 강천섬을 지나고, 경사도 10%에 500m 정도의 장남이고개도 지나고, 강원도 원주를 잠깐 스쳐서 남한강대교를 건너 충청도로 들어서면 드디어 부산 을숙도 이정표가 보인다, 468km! 어느 정도인지 감은 오지 않지만, 가는 길은 맞구나 싶다. 흐릿한 밤꽃 냄새를 즐기며 가다 보니 종주수첩에 없는 비내섬이 보인다. 작년에 생겼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아뿔싸~~ 강천보 인증도장이 안 보인다. 아까 분명 인증샷도 찍고, 다리 건너 내리막길 끝바하고 나서 어도 구경도 했던 그 강천보인데 말이다. 도장 하나 찍겠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열 받은 김에, 뽕밥에 양성막걸리를 하나 시켰다.



첫날 일정도 저물어간다. 고생한 애마 메이조와 함께 석양을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탄금대에 도착했다, 아니 탄금대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탄금대는 저기 계단 너머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다.



여기서부터 새재 자전거길이 시작되나 보다. 오늘 목표는 수안보였으나, 일단 오늘은 자러 가야겠다. 비내섬에서 만난 세 분은 수안보 온 천에 이미 예약을 해서 밤새 가야 한다면서 떠났지만, 아라(야간 라이딩)는 길을 헤맬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충주역 앞의 수많은 모텔 중 올인 모텔을 선택하고 짐을 풀었다. 애마는 방에 들여다 놓고, 빨래 대충 해서 욕실에 주렁주렁 걸어놓고, 만찬해장국에서 올갱이해장국과 시원한 소주 한 병에 몸을 맡긴다.

이화령과 소조령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은근히 기대하면서 잠을 청했다. 출발 전에 자전거 고수들이 하던 말들이 하나씩 귓속을 울렸다. 이화령은 아무것도 아니다. 4대 고개에 부딪히면 이화령이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거다. 가다보면 절벽같이 보이는 데가 있을 거다. 거길 페달 밟아 오를 생각은 하지 말라. 앞바퀴가 들리면 바로 내려라, 다친다.

자전거 국토중주 2일차

오늘은 헬멧에 태극기를 달았다. 집사람이 챙겨준 건데, 나름 의미있는 것 같아 달기로 했다. 예쁘다.

그런데 아뿔싸~~~ 앞바퀴 바람이 빠졌다. 충주역 앞에 공사하는 곳이 많더니 아마 어디선가 실빵꾸가 났나보다. 우짤까??? 우선 대충 바람넣고 자전거빵을 찾기로 했다.

패치며 예비 튜브는 있어 30분 정도면 조치되긴 하겠지만, 출발 전에 점검도 받을 겸 자전거빵을 찾는 게 나올 거 같았다, 충주 시내데.....

물어 물어 한참을 헤메다 찾은 문화동 삼원로터리 사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우정자전거(043-844-4870, 충주시 문화동 514)에서 40년째 자전거빵을 하신다는 맘줄게 생긴 아저씨가 똑딱 떼워준다. 타이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그분이 잠시 다녀가신 모양이다. 빵꾸 떼우느라 충주 시내를 헤맸더니 방향감각을 잃어 자전거도로 찾기가 힘들었다. 우짤거나



남으로 가면 수안보가 나오겠지!!! 국도가 많아 로드킬 안 당할려고 후미등도 켜다.

소조령은 정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소조령이 맞지도 모른다는... 내리막길 끝무렵에 이런 마에이불병좌상이 있어 잠시 관람을 했다. 이정도 길가에서 맞이해주는 부처님을 안 보고 가면 예의가 아닌 듯 하여.. 어차피 내리막길이니까...

소조령 내리막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화령이 시작된다. 5km, 10%.....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철거덕 철거덕 기어 맞춰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소나기가 쏟아진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는 할아버지 한분은 결국 끝바로 오르실 모양이지만, 나는 이화령고개를 가볍게 올랐다.



먼저 인증도장을 찍고, 인증샷도 찍지만 가장 해보고 싶었던 번쩍샷!!! 물통도 있고 해서 15kg에 이르는 메이조 드느라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다. 한손으로 가볍게 들 어울리는, 꽤(?)한 젊은이들이 부럽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막걸리 한사발로 오후 라이딩의 에너지를 보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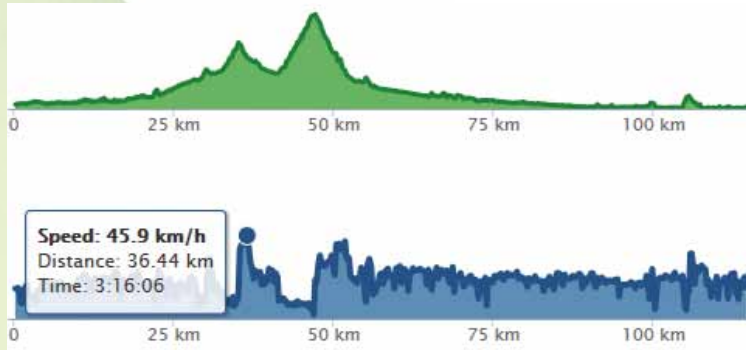
내리막길은 내려 꽃았다. 소심(?)한 성격 탓에 브레이크 잡은 속도가 시속 50km..... 후덜덜 혹시라도 뒷브레이크가 파열될까봐 앞브레이크를 살짝살짝 잡을 땐 자전거가 뒤집힐 것 같았다. 까딱 잘못해서 돌맹이에 튕기더라도 하면 죽을 것 같은 짜릿한 속도감을 셀카와 함께 즐겨본다. 물론 안장을 최대한 낮추고 엉덩이를 뒤로 쪽 빼서 자빠져도 덜 아프게 안전장치 하나 해 놓고...

문경 불정역을 지나서 나타나는 상주 경천대옆 매협제는 자전거 고수가 말하던 절벽이다. 그래,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타라고 만든 거지 암벽 등반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

과감히 끝었다^^

경천대를 지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경천대 안으로 들





어가는 이정표를 무시했다가 한참을 헤메다 돌아와야 했으니까... 국토종주..... 무조건 이 네글자는 따라가야 한다.

겨우 상주보에 도착했다. 날도 저물어간다. 오늘도 원래 목표는 구미였으나, 야라는 안한다.

이화령부터 만난 일행과 함께 민박집으로 가기로 했다. 인증센터에는 자전거민박집 명함이 있는데, 픽업까지 해준다. 민박집에는 이날 밤 30대 정도의 자전거가 들어왔다. 3만원에 저녁과 아침을 주는데, 영화배우 최재성도 묵었다 갔던 유명세가 대단한 집이다. 어머니가 채려주신 것 같은 저녁 밥상에서 우연히 합석한 세 사람은 쇠골이나 광대뼈 등 골절상을 한번씩 당한 적이 있던 터라 무용담 같은 사고를 비롯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밤 깊은 줄 모르고 마셨다. 참고로, 작년 한해에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

